

- 性理學의 선구자 濂溪 周敦頤 -

許 捲 洙

I. 性理學은 사람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이 학문을 처음으로 일으킨 학자가 濂溪 周敦頤다.

孟子 이후 끊어진 유학의 道統을 계승하여, 宋代 性理學의 선구자의 위치에 있다.

北宋 理學 五子[濂溪 周敦頤, 明道 程顥, 伊川 程頤, 橫渠 張載, 晦菴 朱熹] 가운데서 선두에 있어, 성리학의 위상을 정립했다.

염계 주돈이는 그 당시 관직도 높지 못 하였고, 그의 학문적인 영향력도 거의 없었다. 그러나 程子 형제가 그 제자가 됨으로 해서 그의 학문이 후세에 전해지게 되었다.

학문적으로 높이 평가 받지 못 하고 있던 濂溪를, 1백여 년 뒤에 朱子가 그의 저술을 정리하여 주석을 달아 보급하고, 그의 학문을 선양하여 그의 위상을 높임으로 해서 성리학상의 선구자의 위치에 오르게 되었다.

II. 생애

원래 이름은 敦實, 字는 茂叔, 호는 濂溪, 시호는 元公이다.

1017년 :

중국 湖南省 道州 營道縣에서 출생하였다.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배우기를 좋아했는데, 특히 思考를 좋아했다. 어떤 문제를 만나면, 끝까지 궁구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마음으로 이치가 구명

되지 않으면, 그만두지 않았다. 늘 특별히 특이한 문제를 질문하였다. “해는 왜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느냐?” “달은 왜 기울었다 찼다 하느냐?” “바람은 왜 부느냐?”, 만물은 어떻게 생겼느냐?” 등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의 부친 周輔成에게 물으면, 부친이 대부분 답변해 주었다.

1030(14세) :

부친을 잃고, 외숙 龍圖閣學士 鄭向에게 사사했다.

1036(20세) :

鄭向의 官蔭으로 將作監 主簿에 임명되어 관직에 나갔다.

1037(30세) :

湖南省 郴州縣의 현령으로 있으면서, 縣學에서 강학을 시작했다.

1054(37세)년 :

大理寺丞으로 있던 程珣이 주염계가 道를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두 아들 程顥, 程頤를 그에게 보내어 가르침을 받게 했다.

1056(39세)년 :

署 澠州判官事로 있으면서 강의를 하여 道를 전하였다. 사대부들과 학문을 研討하였는데, 따라서 배우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다.

1062(46세)년 :

國子博士로 옮겼다. 廬山을 지나면서 그 뛰어난 경치를 좋아하여, 그 중턱에 자리잡았다. 문 앞의 시내를 고향의 시내 이름을 그대로 가져와 濂溪라고 이름하고, 濂溪書堂을 지어, 장래 은퇴하여 도를 전수할 장소로 삼았다.

1063(47세) :

江西省 廬山을 유람하면서, 유명한 「愛蓮說」을 一筆揮之로 지었다.

1069(55세)년 :

知南康郡事로 나가 백성을 위한 정치를 했다. 특히 獄事 판결을 잘한 것으로 이름이 났다.

110년 뒤에 朱子が 지남강군사가 되어, 白鹿洞書院을 세웠다.

1072(56세) :

풍토병으로 廣東提點刑獄事를 사직하고, 廬山 蓮花峯 아래에 자리 잡아 살았다.

1073(57세) :

그 다음해 堯계서당에서 별세했다.

宋나라에서는 시호를 元公이라 내렸고, 1241년 汝南伯에 봉해지고 文廟에 從祀되었다. 元나라 때는 道國公에 봉하였다.

그는 詩文 창작에 유의하지 않아, 많은 글을 남기지 못 했는데, 淸나라 때 張伯行이 그에 관한 글을 다 모아 朱子全書를 편집했는데, 그 속에 그의 詩文과, 通書, 「太極圖說」 등이 다 들어 있고, 후세에 그를 추모하는 글도 다 들어 있다.

堯계의 언행은, 朱子が 「濂溪事狀」을 지어 伊洛淵源錄 첫머리에 수록하여, 그의 道學的 位相을 확정하고, 또 呂祖謙과 함께 近思錄을 편찬하여 그 속에 濂溪의 言說을 채록해 넣었다.

明나라 黃宗羲의 宋儒學案 속에 많이 그의 사적과 學統이 수록되어 있다.

후세에 理學鼻祖, 道學宗主 등으로 추앙을 받는다.

Ⅲ. 학문과 사상

그의 학문의 핵심사상은 誠이다. 誠은, 天道와 人道가合一된 최고 경지의 표상이다. 誠은, 우주 존재의 근거이고 본체고, 天道의 본질이다. 人性과 道德도 우주가生生하는 과정과 같다고 보았다.

곧 無極과 太極과 陰陽相生의 과정과 같은 것이라고 본 것이다. 그래서 誠은 사람이 갖춘 眞誠善良의 본성으로서 윤리도덕의 근본이 된다.

그는 「太極圖說」을 지어, 우주의 본체, 생성, 無極, 太極, 陰陽, 五行, 動靜, 至誠, 無慾, 順化 등의 기본개념을 구성하여, 후세 성리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유학 속에 道教, 佛教 사상을 융합해 넣었다. 無極에서 太極으로 변하고, 태극이 陰陽을 낳고, 음양이 오행을 낳고, 오행이 만물을 낳는다고 보았다.

「太極圖說」의 첫 구절인 ‘無極而太極’이란 구절에 대해서 ‘無極’은 老子에서 ‘太極’은 莊子에서 따 왔으므로, 후세에 비판하는 학자들도 있다.

인성은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되어 있지만, 스승의 지도가 필요하다. 교육 내용은 誠이 기본이 되어야 하는데, 유교경전이 가장 좋은 교재라고 중시하였다.

교육에서 啓發의 가치를 중시했는데, 自學의 가치를 인정하였다.

정치체제는 德治를 주장했는데, 刑治로써 德治를 보완해야 하는데, 형치는

신중히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는 文以載道를 주장했는데, 문장의 실체는 道이고, 문장 자체는 기예이다. 실체를 독실하게 해서 글을 지어야 한다.

아름답게 지으면, 사람들이 사랑하고, 사랑하게 되면 전해져서, 어진 사람들이 배운다. 이것이 교화다.

실체에 힘쓰지 않으면, 글방 선생들 같은 사람들은 애써 배우지만, 일반 사람들이 배우지 않아 도덕에 힘쓰지 않는다. 오로지 문장만 잘 지으려고 하는 것은, 마치 짐을 싣지 않은 빈 수레를 끌고 가는 것이니, 이런 문장은 사실 폐단이 된다.

IV. 後代 諸儒들의 평가

1). 胡宏曰, “周子, 啓程氏兄弟, 以不傳之妙, 一回萬古之光明, 如日麗天, 將爲百世之利澤, 如水行地. 其功, 盖在孔孟之間矣.” -通書略序-

2). 黃庭堅曰, “其人品甚高, 胸懷洒落, 如光風霽月. 廉于取名而銳于求志, 薄于徼福而厚于得民, 菲于奉身而燕及煢嫠, 陋于希世而尚友千古.”

3). 朱子 「濂溪先生贊」

道喪千載, 聖遠言湮.
不有先覺, 孰開我人?
書不盡言, 圖不盡意.
風月無邊, 庭草交翠.

4). 黃宗羲曰, “孔子而後, 漢儒止有傳經之學, 性道微言之絕, 久矣. 元公崛起, 二程嗣之……若論闡發心性義理之精微, 端數元公之破暗也”. -宋儒學案-

V. 대표적 작품

그는 詩文 創作에 유의하지 않아, 지금 남아 있는 작품은, 詩 28편, 賦 1편, 文 4편 밖에 없다.

그러나 그 내용은 물론이고, 문예적 가치도 대단히 높다.

대표적인 작품을 들면, 아래와 같다.

1. 「太極圖說」

無極而太極. 太極動, 而生陽, 動極而靜, 靜而生陰. 靜極復動, 一動一靜, 互爲其根. 分陰分陽, 兩儀立焉.

‘무극’이면서 ‘태극’이다.

태극이 움직여 양을 낳았다. 움직임이 극에 달함에 고요해졌고, 태극이 고요하여 음을 낳았다. 고요함이 극에 달함에 다시 움직였다. 한 번 움직이고 한 번 고요하여, 서로가 그 뿌리가 되었다. 음과 양이 나뉘어 ‘兩儀’가 섰다.

陽變陰合, 而生水火木金土. 五氣順布, 四時行焉. 五行, 一陰陽也. 陰陽, 一太極也. 太極本無極也.

‘양’이 변화하고 ‘음’이 합하여, ‘물 불 나무 쇠 흙’이 생겨났다. 이 다섯 가지 기운이 순리대로 펼쳐져, 4계절이 운행된다. ‘5행’은 하나의 ‘음양’이며, 음양은 하나의 ‘태극’이고, 태극은 본래 ‘무극’이다.

五行之生也, 各一其性. 無極之眞, 二五之精, 妙合而凝, 乾道成男, 坤道成女, 二氣交感, 化生萬物, 萬物生生, 而變化無窮焉.

‘5행’이 생겨남에, 그 본성을 각각 하나씩 갖춘다. ‘무극의 참됨’과 ‘음양·오행의 정수’가 신묘하게 합하여 모여서, 하늘의 길은 ‘남성’을 이루고 땅의 길은 ‘여성’을 이룬다. 이 두 가지 기운이 교감하여 만물을 변화시켜 낳는다. 만물이 생겨나고 생겨나서 그 변화가 무궁하다.

惟人也, 得其秀, 而最靈. 形既生矣, 神發知矣. 五性感動, 而善惡分, 萬事出矣.

오직 사람만이 그 빼어난 것을 얻어서 가장 신령하다. '형체'가 이미 생겨 남에, '정신'이 지각을 발동시킨다. '仁 義 禮 智 信'의 다섯 가지 본성이 느끼어 움직임에 선과 악이 나뉘게 되고, 만 가지 일이 나타난다.

聖人, 定之以中正仁義, 而主靜, 立人極焉.

성인이 '中正과 인의로 안정을 이루어, '고요함'을 주로 하여 '사람의 극치를 확립한다.

故, 聖人, 與天地合其德, 日月合其明, 四時合其序, 鬼神合其吉凶. 君子修之, 吉, 小人悖之凶

그래서 성인은 하늘과 땅과 더불어 그 덕을 합하고, 해와 달과 더불어 그 광명함을 합하고, 4계절과 더불어 그 순서를 합하고, 귀신과 더불어 그 길흉을 합한다. 군자는 이것을 닦아서 길하고, 소인을 이것을 어겨서 흉하다.

故曰, 立天之道曰陰與陽 立地之道曰柔與剛 立人之道曰仁與義

그러므로 '하늘의 길'을 세우니 '음과 양'이며, '땅의 길'을 세우니 '부드러움과 강함'이며, '사람의 길'을 세우니 '仁和 義이다.

又曰, 原始反終, 故知死生之說. 大哉! 易也. 斯其至矣.

또 이르길 '시작을 추적하고 '끝'으로 돌이킨다. 그러므로 죽음과 삶의 설명을 안다. 위대하다, 易이여! 이에 지극하도다.

朱子評 : “太極說, 是推一理二氣五行之分合, 以紀綱道體之精微.”

2. 「愛蓮說」

水陸草木之花, 可愛者, 甚蕃. 물과 땅에 있는 풀과 나무의 꽃 가운데 사랑할 만한 것이 매우 많다.

晉, 陶淵明, 獨愛菊. 自李唐來, 世人, 甚愛牡丹. 진나라 도연명은 유독 국화를 사랑하였다. 당나라 때부터는 세상 사람들이 모란을 매우 사랑한다.

予獨愛蓮之出於淤泥而不染, 濯清漣而不妖, 中通外直, 不蔓, 不枝, 香遠益清, 亭亭淨植, 可遠觀, 而不可褻玩焉. 나는 유독, 연꽃이 진뻘에서 나왔지만 더럽혀지지 않고, 맑고 잔잔한 물에 씻으나 오염하지 않으며, 줄기의 속은 비어 있고 곁은 곧으며, 넝쿨 뻗지 않고 가지도 치지 않으며, 향기는 멀수록 더욱 맑으며, 꽃꽂이 깨끗하게 서 있어, 멀리서 바라볼 수는 있어도 가까이서 장난삼아 다룰 수 없음을 사랑하노라

予謂, 菊, 花之隱逸者也. 牡丹, 花之富貴者也, 蓮, 花之君子者也.

내가 평하여 말하건대, 국화는 꽃 가운데 숨어사는 사람 같다. 모란은 꽃 가운데서 부귀한 사람 같다. 연꽃은 꽃 가운데 군자다.

噫! 菊之愛, 陶後, 鮮有聞. 蓮之愛는 同子者, 何人? 牡丹之愛, 宜乎, 衆矣. 아아! 국화를 사랑하는 사람은 도연명 이후로는 들어본 일이 드물고, 연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이 누구일까? 마땅하도다! 모란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 것을.

3. 「拙賦」

或謂予曰, “人謂子拙?” 予曰, “巧, 竊所恥也. 且患世多巧也.” 喜而賦之曰, 巧者言, 拙者默. 巧者勞, 拙者逸.

巧者賊, 拙者德. 巧者兇, 拙者吉.

嗚呼! 天下拙, 刑政徹.

上安下順, 風清弊絕.

어떤 사람이 나에게, “남들이 그대가 재주 없다고 말하더군요.”라고 했다. 내가, “숨씨 좋은 것은 내가 가만히 부끄러워하는 바인데, 또 세상에 숨씨

좋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근심한다오.”라고 말했다.

기빠서 이렇게 賦를 지었다.

숨씨 있는 사람은 말을 잘하고,

못난 사람은 침묵하며,

숨씨 있는 사람은 수고로운데,

못난 사람은 편안하다네.

숨씨 있는 사람은 다른 것을 해치지만,

못난 사람은 덕성스럽다네.

숨씨 있는 사람은 흥하지만,

못난 사람은 길하다네.

아아! 천하가 숨씨 없어지면 형벌로 다스리는 정치가 없어져 지도자는 편안하고 아래 백성들은 순종하며, 풍속이 맑고 폐단이 없어지리라.

4). 「題濂溪書堂」

芋蔬可卒歲，絹布是衣食.

飽暖大富貴，康寧無價金.

吾樂蓋易足，廉名朝暮箴.